

# “절에 왔으니 차 한잔 하세요”

## 내소사·증심사 무료다원 인기



내소사 무료다원에는 매일 100여명이 차를 마시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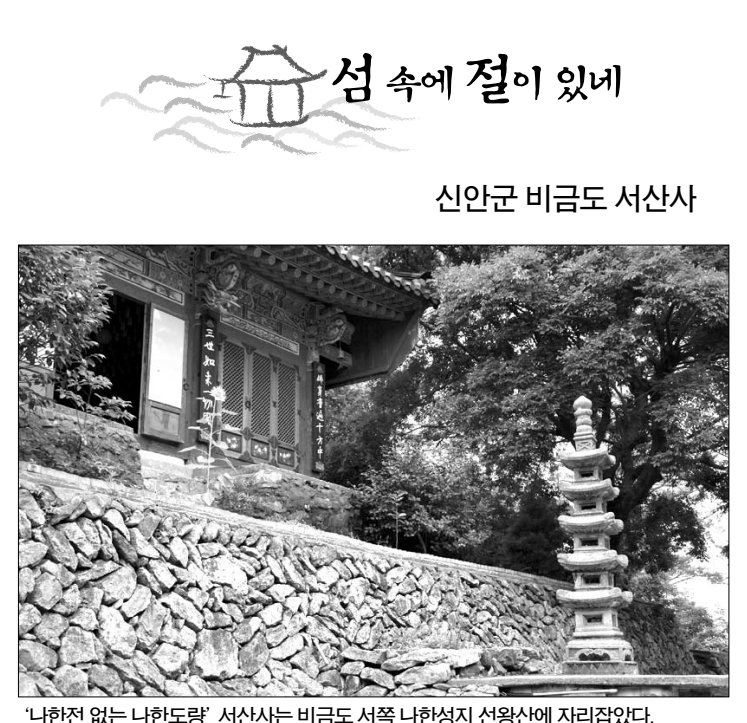
50여명이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증심사 자향다실에는 서적도 비치돼 있다.

“스처가는 구경꾼도 머물다 가는 참배객이 된다.” 천년 고찰에 무료다원이 개설되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는 7월부터 법당 옆 설선당을 무료다원으로 개조해 일반에 공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찾상 9개가 갖춰진 다원에는 매일 100여명

이 찾는다. 주말에는 차를 마시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끊이지 않는다. 무료다원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내소사는 도우미를 두고 초보자들에게 차를 우려내는 법과 마시는 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작설차, 죽로차, 연차 등 전통차와 각종 발효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다보니 일반인들은 사찰에서 먹고, 자고, 차 마시기 등 체험에서 많은 감동 받는 것을 보았다”며 “사찰을 찾는 참배객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차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소사 다원을 맡고 있는 명덕화 보살도



‘나한전 없는 나한도량’ 서산사는 비금도 서쪽 나한성지 선왕산에 자리잡았다.

## 산은 산이요 바다는 바다로다

비금도는 신안군 최초의 전통사찰 서산사(주지 근원)가 자리해 있어 ‘섬 속의 불교성지’로 최적이다. 목포항에서 비금도까지 100여리(54km). 흔히 바닷길이기에 망망대해를 생각하지만, 비금도 가는 길은 섬과 섬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배타고 끝목길을 헤집는 듯하여 색다르다. 서산사(西山寺)는 섬의 서쪽 선왕산

까지 4차에 걸쳐 중창봉사를 진행해 도량을 일신했다. 신앙의 형태는 섬이란 특수성에 따라 미타신앙과 토착적인 용왕·산신신앙이 복합되어 내려왔다. 주지 근원 스님은 21년 전 우연히 비금도와 인연을 맺었다. 사체가 빈약한 섬 사찰에 젊은 스님이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었다. 그 힘으로 도량을 넓히고, 진입로를 포장하며 불사를 해왔다.

스님은 서산사를 ‘나한전 없는 나한도량’이라 소개한다. 선왕산이 그대로 나한도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도와 인근의 여러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일한 사찰이기에 나한전보다 요사체가 우선이었다. 이제는 요사체가 3동이나 되어 50여명 정도가 정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비금도에는 서산사 이외에도 명소가 많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낙조와 선왕산 등산로, 이밖에 칠발도, 성지산성, 석장승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된 ‘하트해변’과 자동차로 10리를 달릴 수 있는 월평해수욕장은 인기가 높다.

서산사의 최초 창건은 고려 말 우왕 1년(1390)으로 선왕산 뒤쪽 내월리였다. 섬의 특성상 물을 따라 몇 차례 자리를 옮겼다. 그 뒤 조선시대 역병정착으로 위축된 교세를 일으키기 위해 1898년 목포항이 개항되자 고서리 절골산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1920년 현재의 자리로 다시 옮겼고, 1989년

## 광주 불교계, 亞 문화교류 선언

### 2일 재단 창립... 초대 이사장에 현장 스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불교계가 주도하는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하 아시아교류재단)’이 설립된다. 한빛예술봉사단, 대원사 티벳박물관, 자비신행회 등 지역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8월 2일 자비신행회 세미나실에서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발기인 및 창립대회’를 갖고 재단법인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아시아교류재단 준비위는 창립선언을 통해 “광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 연구와 예술인의 상호교류를 펼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광주 인도박물관 설립과 아시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호남지역 불교단체들이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창립했다. 사진 앞줄 가운데가 초대 이사장 현장 스님.

장 현장 스님을 재단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진을 선출하고 법인 정관을 통과시켰다. 현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행은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일이다”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아시아 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교류재단은 현장 스님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게 될 인도박물관과 아시아 예술 공연장을 무등산 입구 입동에 건립중이며 10월경 완공된다. 아시아교류재단은 10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의 아시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계간지 발행,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차문화 교류, 불교문화 전수 등의 사업을 펼친다.

## 탄허·서옹 스님 전시비 제막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8월 11~12일 양일간 제2회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구화루 백련담 낙성 및 전시비를 제막한다. 법화사는 장보고 대사 동상과 서옹, 탄허스님의 글을 새긴 전시비, 법륜상을 조성하고 제막한다. 또한 구화루와 구룡연지 일대에서 연차 시음, 글짓기 대회, 서각전, 소망등 달기, 청소년 댄스대회, 연꽃음악회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법화사는 연꽃축제에 앞서 8~9일 마곡사 마가 스님과 함께 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064)738-5225

## 광주 원각사, 재가불자 간담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8월 1일 원각루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직장직능신행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가불자들이 자주 만나 불법을 논의하고 정진할 때 빛고를 광주가 명실상부한 불교정도가 될 것이다”며 “도심속에 자리한 원각사가 재가불자와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각사 재가본당과 가을에 열리는 빛고를 불교아카데미의 원만회향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 네팔 노동자 대행사 참배

한빛 외국인 노동자 센터(소장 고영순)는 7월 30일 해남 대흥사 일대에서 ‘나마스떼! 남도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했다(사진). 조계종 불교사민사회단체가 지원한 이날 순례에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30여명이 동참했다.

한국생활 6년차인 강가 씨(35)는 “틈틈이 한국 사찰을 참배했지만 상세한 안내를 받기는 처음이었다”며 “한국인의 사후세계를 볼 수 있는 지장전과 초의선사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말했다.

한빛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7월 16일에도 외국인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빛고를 나들이’에 나서 영화관람, 시내 탐방, 볼링 시합 등을 가졌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 대한불교선교종 행자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종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 모집대상(5명~7명)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 문의
  -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 ◆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 청동 불상 조성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